

월간 범어교회보 Vol. 440

늘 푸른 숲

2026. 2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신년특밤 예벤에셀과 여호와 아래

삶 속에서의 경건을 실천하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역설의 복



이지훈 담임목사

캐나다에 살 때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어 하늘길이 막힌 것으로 1년 정도를 원치 않게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살며 집안 일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평범하게 누려왔던 가정에서의 삶을 위해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가정이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 구성원 중 누군가는 낮은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많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회사처럼 월급을 주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자발적으로 감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많은 수고와 헌신들이 있기에 예배와 사역들이 잘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이고 서로 섬김입니다. 물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김을 충분히 받았다면 나 또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섬김을 받는 분보다 더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야말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자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낮은 자리였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낮은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낮아짐으로 섬기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 낮은 곳이 주는 역설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을 열며

신년 특밤에 오셨던 김병년 목사님이 커피를 좋아하시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모님이 쓰러지시기 전 마지막 데이트로 간 곳이 커피 가게여서, 커피를 좋아하지 않던 목사님이 가끔씩 그 가게를 들르게 되셨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곳엔 실력있는 바리스타가 주인이셔서 목사님의 안색을 살피고 그에 따른 원두나 커피를 추천해 주시곤 했다지요.

한날, 커피를 마시다 문득 원두만 가지고는 향기를 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원두를 수확해서 말리고, 요리조리 굴리며 태워서 검은색으로 바꾼 다음, 적정한 열을 가해 볶아야 기막힌 향이 난다지요. 목사님께 고통은 커피처럼 삶을 굴리고, 태우고 볶고, 갈아서 나만의 맛을 내는 창조주의 고단한 작업 같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워서 향기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답니다. 고려대 학생들의 아침밥을 챙기는 길성운 목사님의 마음도, 우리를 눈물짓게 만든 지선 전도사님의 삶도 자신을 태워서 향기를 내는 삶이었습니다.

며칠 전 고등부 겨울수련회에선 아주 색다른 장면이 제 뇌리에 남았습니다. 고신대 우병훈 교수님이 로마서 16장 전체의 내용을 강의로 풀어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40~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다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할 이 고등학생들이 10분의 휴식 시간 내내 교수님을 불잡고 질문을 하더군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2일 내내 삼삼오오 모여서 함께 질문하기도 하고, 혼자 찾아가 질문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재미나는 강의가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이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삶의 이야기가 2월호에 담겨있습니다. 2월의 우리 삶도 창조주 하나님의 고단한 작업으로 인해 태워서 향기 나는 인생이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질문하는 시간이 길 소망해 봅니다.

•이창권 집사(교회보팀)



2026 February | Vol. 440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 03 목양칼럼
- 04 2월을 열며 _ 이창권 집사
- 05 목차
- 06 BOOK |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_ 정대성 목사
- 08 신년특밤 |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_ 이미경C 집사
- 10 신년특밤 |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_ 박수철 집사
- 11 송구영신예배 | 범어의 송구(送舊)와 영신(迎新) _ 김성애 집사
- 12 청년부 | 훌리코이(Holy Koi), 삶 속에서의 경건을 실천하며 _ 권준혁 청년
- 14 내 영혼의 찬양 |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_ 전민주 사모
- 16 나의 한 구절 | 서은주 전도사
- 18 중등부 겨울수련회 |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_ 권진혁 학생
- 20 고등부 겨울수련회 |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_ 전민지 학생
- 22 공감의 장 | 처음 가본 교회 북콘서트, 새로운 경험 _ 동덕초 5학년 학생
- 24 인터뷰 | 우리의 생각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_ 최황덕 · 김남숙 선교사
- 27 책 소개 |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 28 행사단신 | 1월의 범어
- 30 범어 ‘인(人)’의 얼굴 / 범어범어
- 31 범어동정 / 행사 안내

제440호 | 발행일 2026년 2월 1일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권오종 | 2026년 교회 표어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http://pomo.net>

Tel. 053) 667 8800 | Fax. 053) 667 8888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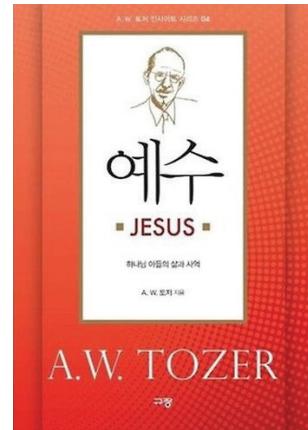
올해, 늘 푸른 숲의 기획도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친 A.W.토저가 그의 영적 통찰력으로 써 내려간 책 <예수>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미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내밀하신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시길 고대합니다. 이번 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편의 예수님을 읽어봅니다.

범어교회는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하며,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할까요?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과 신약 모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에게 내주하시며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은 성도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야기이며, 나아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최로 물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A.W.토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가능한 한 조금만 내려오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들이나 스랍들이 있는 곳에서 멈추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의 본성을 취하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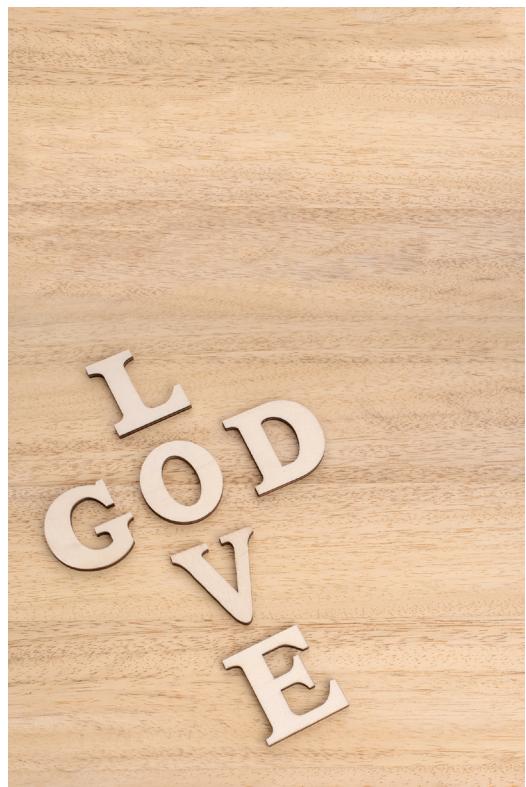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자체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추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시작된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의 형벌로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높아지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낮아짐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낮아짐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 범어교회 온 성도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발견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화평을 이루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 정대성 목사



2026년 한 해의 시작을 신년특밤으로 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가정, 교회, 이웃과 일터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의 해답을 특밤을 통해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함께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범어의 특별한 밤을 다시금 거닐어 봅니다.

첫째 날, 종 됨이 최고다 (막 10:44~45) 김병년 목사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섬기는 자, 바로 종이 되는 섬김이다. 가장 가깝고 모든 것을 함께 하지만, 가장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도 가족이다.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서로의 부족을 보완해 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둘째 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갈 3:26~29) 김병년 목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의 자녀이며 교회 안에서 한 가정이다.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는 자로 나를 죽이고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성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

셋째 날, 마른 뼈 골짜기가 부흥의 진원지로! (겔 37:1~10) 길성운 목사

에스겔서를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하게 된다. 슬픔과 고통이 있는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마른 뼈에 살과 생기를 불어넣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군대)이 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 에스겔서는 절망서가 아니라 희망서이다. 하나님은 연약하기 그지없어 넘어진 우리 인생에 찾

아오셔서 말씀의 불씨로 회복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며 일어설 힘이 되어 주신다.

넷째 날, 비자발적 선교사의 영성

(열하 5:1~19) 길성운 목사

포로로 잡혀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된 여자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 순종의 태도, 표정, 말과 행동이 남다른 그 여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가 병 고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에서 두려움으로 설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엘리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다섯째 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시 140편) 지선 전도사

믿는 자에게 시련과 시험은 절망을 포장하여 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한다. 폭풍과 거센 바람 가운데 피어난 꽃과 같은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은 주님이 함께 걸어오신 길이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양이었다. 지선 전도사님을 위한 이지훈 목사님의 기도는 위로와 응원과 축복이었다.

신년특밤의 5일 동안, 든든한 저녁을 책임져 주신 분들을 비롯하여, 맛있는 봉어빵을 구워주시고,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미니올림픽과 120주년 축하행사 등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의 헌신의 두 손에 감사드립니다. 신년특밤을 통하여 받은 말씀과 은혜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 이미경C 집사(교회보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운영하는 공간에는 매일 ‘타인’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공유 공간을 운영하며 부끄럽지만, 나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타인’을 영접하며 살기를 연습하고 있다. 특밤 둘째 날 오후, 놀랍게도 아는 집사님께서 김병년 목사님과 함께 우연히 내 공간에 찾아와 주셨다.

나는 20여 년 전 학교 IVF공동체에 있으면서 목사님을 강사로, 책으로 만난 적이 있다. 고통 한 가운데를 지나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었는지 훈자 질문을 던졌다. 마침 가까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그 질문을 토대로 실존적인 말씀과 내 삶 깊이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신년특밤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는 지난 모든 삶이 날마다 성화 가운데 있음을 생각했다. 여전한 문제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분은 어떠한 분인지를 매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현재진행형인 ‘삶’일 것이다.



내 안에 말씀이란 거울을 비추어 나의 깨진 모습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도록 작은 틈들을 열어놓아서 **나로 가득찬 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을 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나를 둘러싼 세상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소원한다.



순종은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이미 주신 구원의 성취,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 하셨다. 나는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싶다. 마지막 날,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기 때문에 ‘소풍 같은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이길 기도한다.

• 박수철 집사(디모데청년회)

범어의 송구(送舊)와 영신(迎新)

해의 마지막이자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 범어 가족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늦은 밤이었으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본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의 모습에는 송구(送舊)의 아쉬움보다는 영신(迎新)의 설렘이 가득하였습니다.

예배에 앞선 특별순서를 통해, 2025년 한 해를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워십과 중창, 가야금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5년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표어처럼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였던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모두 한마음으로 예벤에셀의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할렐루야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더불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새해의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는, 저마다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카드’를 받아 들고서 눈으로 읽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바라보았습니다.

2026년 표어인 ‘예벤에셀과 여호와 이레’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예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새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실 것을 불들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매일의 평범한 기적을 발견하여, 그 은혜를 노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9절)

• 김성애 집사(교회보팀)



홀리코이(Holy Koi), 삶 속에서의 경건을 실천하며

지난 12월 25일, 새벽이슬 청년부는 청도 각남교회로 어르신들을 위한 성탄 전도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청도 각남교회와 새벽이슬 청년부의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여름 선교 여행을 시작으로 11월 각남교회 ‘새 생명 전도 축제’와 12월 ‘크리스마스 전도 축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행은 예기치 못한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청년부 안에서는 ‘코이’라는 이름으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였고, ‘홀리코이’(Holy Koi,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을 삶 속에서 함께 지켜 가자)라는 목적 아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박 2일 MT를 계획하게 되었고, 단순한 친목을 넘어 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없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100% 자비량으로 시골 교회를 방문해 섬겨보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도 각남교회와 연결되었고, 청년부 ‘하네니 선교팀’을 통해 섬김을 시작하게 되어 지금까지도 그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각남교회를 직접 찾아뵙고 주변 마을의 상황과 마을 어르신들을 향한 교회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다섯 개의 마을이 있었고,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은 80대 초반으로, 많은 분들이 홀로 지내고

계셨으며 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남교회 목사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매주, 콩나물과 두부를 손수 나누며 어르신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지난 여름 첫 방문 당시, 마을 어르신들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마을회관까지 내어주셨고, 방문하는 곳마다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후 11월부터는 매월 셋째 주일, 아침부터 점심까지 교회를 방문해 찬양과 레크리에이션, 차량 운행으로 섬기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해 주셔서 음식을 나누고, 어르신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레크레이션과 음식, 선물 등으로 마을의 어르신들을 초청하고 즐겁게 해드렸지만, 가장 나누고 싶은 것은 성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이 교회에 오신 하나님을 모르는 30여 명의 마을 어르신들께서 모두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비록 손자, 손녀뻘 되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잃어버린 한 영혼이며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흘러,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믿습니다. 범어교회가 가진 사랑과 청년들의 열정이, 다섯 마을 영혼들의 믿음의 종착역이 되어온 각남교회에 작은 힘이 된다면, 그것이 곧 우리 청년 선교의 시작이자 범어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동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식어서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섬김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비록 여러 상황으로 인해 직접 가지 못하는 시간이 오더라도, 기도로 중보하고 마음으로 동행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교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이슬 청년부는 1월에도 다시 각남교회를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정기적인 만남은 농번기 전인 3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후 여름에는 다시 청년들이 함께 방문해 농사일을 돋고, 다섯 마을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랑하는 범어교회 성도 여러분, 청도 각남교회와의 이 동행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권준혁 청년(청년1부)



나를 살리는 119,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중·고등학교 시절 다른 친구들에 비해 노래라는 꿈을 빨리 발견했던 저는 예술중학교를 졸업하고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고 그 과정 중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저희 집은 큰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고에 합격은 했지만, 진학이 어려워졌고 어린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교회에 가서 피아노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였습니다. 예고 등록 하루 전에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돋고 싶다고 하셨고, 기적적으로 등록을 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입학하게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 정규 수업 외에 성악 레슨을 받아야 했지만, 레슨비를 낼 수 없던 저를 선생님들은 거부하셨고, 담당 선생님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유치원 아이가 인생이 담긴 트로트를 부르듯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 교회에 들려 2절 가사인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저 피아노 앞에 앉으면 눈물부터 흐르고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가사 한 자 한 자를 곱씹으며 찬양하고



집에 갈 때면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찬양의 모든 가사는 꼭 제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어려웠던 시절에 숨을 쉴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고, 울고 있던 제 자신과 하나님이 독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시간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기도는 찬양으로 응답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소천했을 때 사랑하는 친구가 마주한 큰 아픔 앞에서, 때로는 주님께 실망하며 신음할 때도 주님께서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 제게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며 선명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제겐 꼭 119와 같습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 때나 교회 성도님들의 아픈 기도 제목을 듣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나면 제 손을 잡아주시며 안아 주시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찬양은 제 삶에서 단순한 노래를 넘어, 가장 절박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기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슬픔과 흔들리는 믿음의 고백까지도, 주님은 찬양의 가사를 통해 조용히 받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삶이 다시 버거워질 때마다 그 손을 붙들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확실한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떨림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묵묵히 곁에 계셔서 손을 내미시고, 끝내 품어 안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상황을 넘어, 눈물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전민주 사모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 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 잡고 날 인도하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복음은 영원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고 선포한다.
사람의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그분과 상호작용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순간에 시작된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이며,
지금 이곳 내 삶의 자리가 베엘이 되었다는 선포이다.

「인생, 영생이 되다 / 존 오트버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안에 들어왔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열렸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 고달프고, 고통스러우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남과 같은 시간들을 만나겠지만
우리는 이미 전능자의 권능과 보호 아래에 살며
그분과 동행하는 영적 순례의 길을 시작했다.
이 얼마나 완전한 위로이며 평안인가. 이제 우리의 고백은 이 찬송과 같으리.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서은주 전도사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모태신앙이라 했을 뿐, 교회에 나가기를 싫어했고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공부를 핑계로 교회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겉으로만 믿는 척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갔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힘있는 친구들에게 붙어 다니며 남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심하게 장난을 치기도 했고 주먹질을 하며 싸운 적도 많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점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졌고,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고 제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서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계속되자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는 못할망정, 왜 이런 길로 빠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던 중, 중등부 겨울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에는 “성령으로 난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살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저의 지난 행동들이 떠오르며 깊이 후회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분과 인종, 죄의 유무를 초월하여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늘 세상의 기준으로 결과만을 바라보며 행동했던 저의 모습과 예수님의 주시는 생수가 아닌 세상의 물을 마시며 살았던 제 삶이 떠올랐고 제가 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 기도회 시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었던 제 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저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망하던 모든 결과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던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결과들이 제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큰 은혜를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날 이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제 마음을 덮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눈먼 양을 어둠 속에 혼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길에, 사실은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수련회를 통해 저는 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기준과 결과를 따라 살며 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니라, 세상의 물을 마시며 목마른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련회를 통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인인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 권진혁 학생(중등부)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며 매번 ‘수련회는 무조건 참여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가 다가올수록 ‘내가 지금 수련회 가는 것과 고3으로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해 나중에 하나님께 더 큰 일로 영광을 돌리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좋아하실까?’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를 앞두고 몇몇 친구들과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 친구들의 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가득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말고 ‘진짜 고3 기간에 불들어야 할 하나님을 만나보자!’라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과 둘째 날.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은 많았지만, 이 깨달음과 별개로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응답하고 있지 않고, 그저 말로만 기도하는 것 같은 제 모습에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병훈 목사님께서 롬 8:38~39의 말씀으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전날 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면 그냥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저에게, 이전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했던 저에게, 여전한 하나님



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주님을 선택하게 하신 일들을 떠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설교 후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아픔을 고백해 보라.’는 말씀에 저는 제 마음을 돌아보며 ‘사실 하나도 안 괜찮은데, 이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깐 그냥 괜찮아야 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또한 마음의 여러 상처들로 주님을 외면하고, 삶 가운데 지었던 죄들이 떠오르며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랑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제 친구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가 ‘주님, 제가 사랑하는 제 친구 민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기도만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역자를 제 옆에 세우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날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계셨는지, 너무 사랑하셔서 제 옆에 세우시고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저를 위해 주변에 여러 믿음의 선배,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거라 말하지만, 삶에 힘듦이 찾아올 때 저는 쉽게 무너질 연약한 자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는 예수님의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저를 붙드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전민지 학생(고등부)

처음 가본 교회 북콘서트, 새로운 경험



처음 가보는 교회는 누구에게나 조금 낯설고 긴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특별한 인연이 없었던 5학년 남학생에게는 이번 북콘서트가 설렘과 걱정,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명 작가와 소프라노의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진 북콘서트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낯선 장소가 아닌 즐거움과 배움이 가득한 열린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책 이야기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예배의 공간을 넘어 이웃과 세대를 잇는 배움과 소통의 장,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북콘서트가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는지, 5학년 남학생의 순수한 눈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날아라 삑삑야〉 책을 쓰신 권오준 작가님과 소프라노 선생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심지어 권오준 작가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라, 친구들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과연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신나는 마음으로 토요일 아침 9시에 학교에서 만나 차를 타고 출발했다.

북콘서트가 열리는 범어교회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어린이도서관에 가서 자신이 읽고 싶은 책들을 읽었다. 아주 많은 책이 있었다. 심지어 모든 책이 다 내 취향이어서 신나게 읽었다. 책을 읽고 나서 큰 공연장 같은 곳으로 들어가니, 유명한 권오준 작가님이 기다리

고 계셨다. 처음에는 ‘이 북콘서트를 잘 즐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기도 했지만 권오준 작가님이 재미있는 이야기와 농담도 해주셔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렇게 웃기도 하고 책 이야기도 들으며 북콘서트를 즐겼다. 중간중간 소프라노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엄청 높은 고음에 놀랐다. 진짜 ‘저런 목소리가 어떻게 목에서 나올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권오준 작가님은 옛날이야기도 들려주셨고 술래잡기에서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대사를, 느낌을 살려 잘할 수 있는 학생 6명 정도를 뽑아 선물도 주셨다. 우리 반 친구도 용기 내서 무대에 올라가 발표했는데 진짜 진심으로 너무 웃겼다. 아쉽게도 선물은 받지 못했지만, 너무 재밌어서 한참을 웃었다. 권오준 작가님한테 친필 싸인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작가님께 직접 싸인을 받으니 너무 특별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 북콘서트를 마치기 전, 소프라노 선생님께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노래를 한 번 더 불러주셨다.

마지막으로 권오준 작가님과 소프라노 선생님과 사진을 찍고 오늘의 소감을 ‘너무 좋아요’ 다섯 글자로 표현하였다. 선물도 받고 친구들과 햄버거도 맛있게 먹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더 재미있었고, 신나게 즐겼던 것 같다.

사실 교회에 처음 와 보는 거라 오기 전엔 조금 낯설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마음이 편해졌다. 재미있는 책 이야기도 듣고 소프라노 선생님의 아름다운 노래도 들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웃고 떠들었던 모든 순간이 너무나 즐거웠다. 덕분에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고 다음에도 선생님과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곳에서 북콘서트처럼 또 다른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동덕초 5학년 학생

우리의 생각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올해 인터뷰 코너는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계기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담고자 합니다. 그 열두 번째 순서로 르완다 협력 선교사이신 최황덕, 김남숙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Q. 두 분의 유년 시절은 어땠는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A. 최선교사 : 저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고 서너 살 때쯤 인천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학생 때는 행함과 믿음 사이에 갈등도 있었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첫 직장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저는 아내가 마음에 드는데 자꾸 외국을 나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로요. 그래서 제가 학교 후배니까 용돈도 주고 잘 돌아오라고 신발도 사주고 그러면서 청혼을 했어요. “지금 선교지에 가지 말고,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들 키워놓고 그때 같이 가자.” 그렇게 허락을 받아 결혼했어요.

김선교사 :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첫 번째로 믿은 사람이에요. 일곱 살 때 부모님이 집 근처에 있는 선교원에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1 때부터는 유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대학생 때였고, 1990년에 CCC를 통해 필리핀으로 2주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보람된 삶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삶이란 생각이 들어 선교사로 나가겠노라고 서원을 했어요.

Q. 그럼, 르완다 선교사로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A. 김선교사 : 대학생 때 선교사로 서원을 했지만, 결혼하고 아이 셋 키우며 시어머니 모시고 직장 생활하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거의 20년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2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나한테 청혼할 때 했던 말 기억해?” 그랬어요. 그러자 남편이 바로 다음 날부터 2년 동안을 의료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최선교사 : 아내의 얘기를 듣고 시작한 의료 선교 훈련원에서 2년 과정 훈련을 받으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느냐”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는 후원의 문제가 쉽지 않더군요. 주 파송 교회가 없던 5년의 광야 같은 시간도 있었답니다.

르완다로 오게 된 계기는, 제가 다니던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병원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하며 “선교는 나가서 그 나라에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굳혔어요. 그러던 차에 의사셨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신 분의 아내 선교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한 통 준 거예요. 어떤 후배 의사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내와 제가 각자 기도하면서 여기에 가야겠다고 맘을 굳혔어요. 그곳이 바로 아프리카 르완다였답니다. 하나님께서 미망인 선교사님을 통해 “여기 아프리카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저희에게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내는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먼저 2019년 9월에 왔고, 저는 병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인증을 마치고 11월에 왔습니다.

Q. 르완다로 와서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A. 김선교사 : 남편이 주 사역인 병원 사역을 하고 저는 신학을 했으니 말씀 사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배우자 비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병원 인증 때문에 같이 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단독 비



자를 내야 했고, 이전 직업인 물리치료사 면허로 비자를 신청했는데 3주 동안이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민국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서 “이 병원은 물리치료과가 없으니 네가 이 병원에 물리치료과를 개설하고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으면 바로 비자를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과를 개설하게 됐고, 처음엔 무료 환자만 볼 생각을 했는데 유료 환자, 보험 일반 환자, 무료 환자 다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여긴 농업이 주업이라 병원에 오는 환자의 약 80%가 근골격계 환자였어요. 그래서 물리치료과를 개설한 게 결국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침대 하나로 시작한 물리치료실이 병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물리 치료센터가 되었네요.



최선교사 : 저는 여기서 방사선사, IT지원, 원무 행정을 돋고 있어요. 이렇게 마당쇠 역할을 하다보니, 병원 청소부까지 제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잘 살고 있나봐’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평생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살고 싶었거든요.

Q. 르완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신 순간이 있다면?

A. 김선교사 : 르완다는 건기에 4~5개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래서 우수를 모아놓는 탱크가 지하에 있는데, 그게 균열이 가서 인부를 불러 균열을 메우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인부 두 명이 방수 처리를 하다가

그 안에 있는 가스로 질식 사고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그 사람들을 구하다가 위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답니다. 만약에 그때 질식사가 발생했더라면, 나누리 병원은 폐쇄됐을 거고, 보름 뒤에 오는 범어교회 첫 번째 단기 선교팀(의료 선교팀)이 못 왔을 거예요.



최선교사 : 또 한 번은 아내가 집에 가스 불을 켜두고 출근했어요. 마침 그날이 금요 기도회여서 밤 9시에 돌아왔거든요. 14시간을 켜뒀는데 불이 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했답니다.

그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주 파송 교회가 없던 5년의 그 광야 같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기에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받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 정리 교회보팀

우리 같이 걸을까요?

요한복음 (브루스 밀른, IVP, 2023)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어졌다. 사랑의 깊이를 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하여 말씀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께 이르는 오직 한 길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다.’ 그 어떤 말로도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진리의 높이와 깊이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그 광대함은 우리를 압도한다.

참된 믿음의 눈은 그리스도를 눈앞에 놓고 그분 안에서 사랑으로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본문 中

산책(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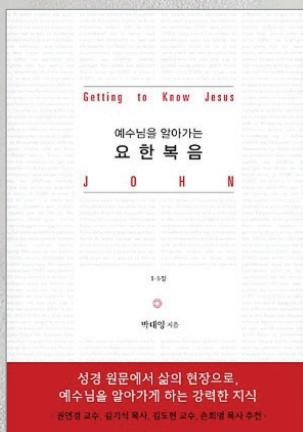


예수님을 알아가는 요한복음 (박대영, 두란노, 2016)

예수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 암으로 폐가가 된 우리를 새집으로 지어가고, 함께 그 집에 거하길 바라신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변하지 않는 사랑은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존재로 빛어지길 원하신다.

“성육신은 말씀의 영광과 육신의 한계가 만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있는 자들을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구원 혹은 영생은 주고 받는 어떤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즉 그분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예배가 있고, 순종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中



1월의 범어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2일(금) 예루살렘채플에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무예배를 드렸습니다.



4일(주일) 1~4부 예배 시간에 온 성도들이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도 결산서 및 2026년도 예산서(안)

예배예산과 예산이자기

11일(주일) 오후예배 후에 정기제직회 및 공동의회(예결산, 교회 공사비 충당을 위한 대출 승인)가 있었습니다.



5일(월)~9일(금)에 김병년 목사(월, 화), 김성운 목사(수, 목), 지선 전도사(금)을 강사로 신년 특별 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12일(월)~14일(수)에 “성령으로 난 자”란 주제로 중등부 겨울수련회가 현풍 호텔 아젤리아에서 있었습니다.



14일(수)~17일(토)에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주제로 고신대 우병훈 교수를 강사를 모시고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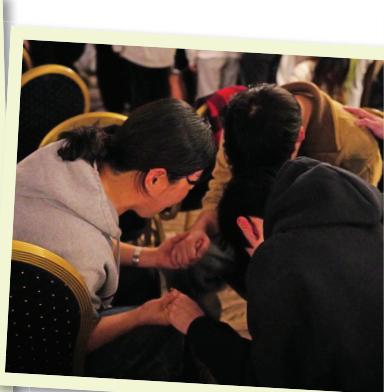
15일(목) 오전 11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제 55회 전국 성경고사대회 및 제 48회 찬양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단기선교팀이 23일(금)~27(화)까지 대만 타이페이(장승훈 선교사)에서 경미여고 초청행사와 찬양 버스킹, 선교 역사 템방을 하고 돌와왔습니다.

범어‘인(人)’의 얼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

다음 세대인 중등부와 고등부 겨울수련회 모습입니다. 온 맘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에 질문을 품고 다가오는 이들을 통해 120년 이후의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됩니다!



범어범어(泛魚凡語)

“죄는 사면되었으나 기억은 남아 있고, 습관은 다시 죄로 이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매일 다시 하나님께로 부른다. <크리소스톰>”

새가족 목자 모임 중

“하나님의 집은 나의 몸과 나의 집만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현실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집이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분의 집이 되어야 한다.”

주일 설교 중

“인생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다. 기도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겸손해진다. 기도로 승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일 설교 중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처음 나온 아기



이소미 (박윤미, 이성윤)

■ 결혼

- 김복선 권사의 딸 손은민양 : 1월 11일(주일) 오후1시10분 호텔라온제나 7층 컨벤션홀
- 정유리 집사의 딸 김초롱양 : 1월 17일(토) 오전10시30분 호텔인터불고 인터빌리지
- 이희동 집사(김애경A 집사) 장남 이영만군과 홍경지양 : 1월 24일(토) 낮12시 호텔인터불고 인터빌리지

■ 출산

- 도으로 집사(황성은 집사) 득남 : 1월 9일(금)

2월 교회 행사 안내

- 8일(주일): 주일설교 장영일 원로목사
- 20일(금): 온세대 기도회
- 22일(주일): 정기당회
- 27일(금): 120주년 기념 범어교회출신 목회자 초청설교: 이영배 목사(성일교회)
- 28일(토): UPS 입학 컨퍼런스

2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7일(토): 고등부 임원 학부모 간담회
- 7일(토): 중등부 학부모 간담회
- 13일(금)~14(토): 고등부 학생 리더십 캠프
- 20일(금): 온세대 금요기도회
- 21일(토): 소년부 겨울성경학교
- 21일(토):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 22일(주일): 초등부 새친구초청 주일
- 28일(토): 유년부 겨울성경학교

편집장 | 이영선C

부편집장 | 신규식, 여경진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현성, 서정주

손명진, 이미경C, 이상진, 이창권

조성희A, 허윤정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Jabez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복음을 전하세요 전폭하세요

전도폭발 훈련이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훈련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체계적인 복음을 익히고 효과적인 전도법을 훈련 받습니다.

훈련된 전도대원들과 함께 현장실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삶에 실제적인 열매를 맺도록 도와드립니다.



훈련기간 13주 과정

금요반 : 3월 6일 ~ 5월 29일 오전 10시

주일반 : 3월 8일 ~ 5월 31일 오후 2시

훈련문의

장철웅 목사 010-2842-0400

장은조 권사 010-5757-9626

이윤미 A 집사 010-2696-2474

영어
전폭